

거창군의회 건의문

『거창기능대학을 연수원으로의 개편 절대 반대』

우리 거창군의회 13인 의원 전원은 전국 24개 기능대학 중 거창기능대학을 포함 5개 기능대학을 구조조정을 해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한 없는 실망감과 함께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1. 경남의 서북부 산간오지에 위치한 우리 거창군민들은 그간 이른바 소위 일류 대학이라는 서울, 연고대를 매년 100여명이나 입학시키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도시라는 명성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지금도 우리 거창군민들은 1996년 12월 31일 우리 거창에 기능대학 설립이 인가되었다는 소식에 감격과 합성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2002, 2003학년도 전국 기능대학 종합 평가에서 “다”군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거창기능대학을 중앙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구조조정·개편하겠다는 것은 우리 거창군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우리 거창기능대학은 2004년부터 국내유수기업인 (주)하이닉스반도체와 맞춤형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주)ED, (주)한국화이바 등과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여 기능인력 양성에 몰두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개편 안을 마련해서 통보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정책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4.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전국을 고루 잘사는 균형개발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의 최대 과제로 삼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과 같은 소도시 지역에서 그간 견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대학을 없앤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로 정부에서는 입으로만 균형개발을 외치고 있다는 면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5. 우리 거창기능대학은 거창군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건강하게 뿌리를 활착 시켜왔고, 대학 정원 미달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해도 우리 거창기능대학은 지금까지 학생모집에 대한 걱정은 없었으며, 또한 거창기능대학은 국립대학임에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지자체에서 2002년 이후 총6억6천여만원의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6. 특히 올해(2005년)는 거창을 로봇 산업단지화 추진을 위해 거창군과 긴밀한 협조하에 제2회 전국 로봇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에 매진하여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데 기능대학이 설립목표에 부합하는 역할과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범적인 대학입니다.
7. 거창군에 4년제 대학 유치도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정책입안으로 평가받을 것인데, 이는 고사하고 기존 기능대학도 없애고 연수원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 발상 인 것 같습니다.
8. 우리 거창은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바 있고, 지금 교육특구와 영어마을 신청을 의욕적으로 준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창기능대학 개편을 반대하는 대안으로 거창소재 도립전문대와 기능대학을 통합하여, 기능대학의 현 시설에 이공학부를 설치, 로봇관련 특성화의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우리 군민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강한 의지를 배려하여 거창기능대학과 도립거창전문대학간 원만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창 기능대학을 현행과 같이 2~3년만 현 상태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교육의 도시 거창! 교육의 메카 거창!” 에서 참여정부의 최대 지상과제인 균형 개발이 재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주 잘못된 거창기능대학 개편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건의 드립니다.

2005년 9월 14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